

<귀천>의 시인 천상병

세상을 아름답다고 말했던, 거리의 탁발 행자

고(故) 천상병 시인(1930~1993)을 기리는 천상병예술제가 지난 4월 28일부터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다. 이 땅 위의 삶을 '아름답다'고 말했던, 문단의 기인 천상병 시인. 이번 달 '작가파일'은 그와 특별한 우정을 나누었던 문학평론가 구중서 선생의 글을 통해 이제는 우리 곁에 없는 그의 시심(詩心)을 추억해 본다.

-편집자주-

글_구중서



시 한 편의 힘

무릇 '고전'이라는 것, 현대의 고전이라는 것도 그 의미와 가치는 끝없이 오래 간다. 고전이라 할 만한 문학 작품은 가지수에 있어서는 희소하니, 귀한 것이 흔할 수 없다는 것은 마땅한 이치일 것이다. 한국의 현대문학사에도 수많은 시인이 있지만, 대표적인 시인이라 해도 한 시인에게 과연 고전으로 남을 법한 작품이 몇 편씩이나 있을까. 적게는 한두 편을 넘지 못하기 마련이다.

서울의 인사동 골목에 늘 떠 있는 분위기의 한 부분 같은 것이 있다. 그것이 천상병 시인의 시 <귀천>이다. 몇 편을 더 보태지 않더라도 그는 <귀천> 한 편만으로 길이 살아남을 시인이다. 더불어 카페 '귀천' 까지도 인사동에 들르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어 있다. 이와 같은 대중의 관심은 역시 <귀천>과 시인 천상병에서 연유하는 것이다.

나 하늘로 돌아가리라
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
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,

나 하늘로 돌아가리라
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
기슭에 놀다가 구름 손짓하며는,

나 하늘로 돌아가리라
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
가서,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.

-<귀천> 전문

이 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애송될 뿐 아니라 인사동 길

한복판의 돌에도 새겨져 있다. 심지어는 경기도 양평의 어느 공원 광고문에까지 인용되고 있다. 이 시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고 널리 번져 나가는 현상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.

지성과 철학을 벗한 시절

천 시인을 사랑하는 마음의 흐름은 걸모습과 속뜻이다 르기도 한 것 같다. 걸모습을 말한다면 대개 다음과 같이 된다. “천상병 시인은 순진한 어린이와 같다. 또 그는 거리의 시인으로, 떠돌던 행색이 기인과 같았다.” 그러나 이렇게 보는 데만 그치는 것은 천 시인의 원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. 그를 축소해서 왜곡하는 결과가 된다.

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그의 또 다른 모습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? 그 자신이 문학평론가이기도 했던 그는 다음과 같은 산문을 남기기도 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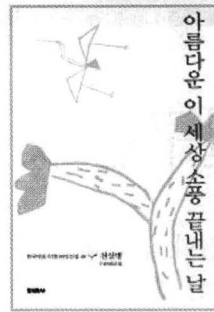
프랑스에서 민중의 혁명이 불같이 일어나고, 격노한 군중의 인파가 베르사유 궁전으로 밀려가는 아우성 소리를 들으면서 베를리오즈는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<환상 교향곡>의 마지막 부분을 작곡하고 있었습니다. 마지막 막을 다 작곡하고 펜을 놓았습니다. 그리고 그는 군중의 행렬 속으로 뛰어 들었다는 것입니다.

한국의 작가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정신의 고문입니다. 한국의 작가들은(나를 포함해서) 4·19를 전후한 시기를 겪으면서, ‘그런 작품’도 없었고 ‘군중의 행렬’도 없었습니다. 창피스러운 체면입니다.

한 학생이 “한국 작가들의 작품에는 너무 예언성이 없는 것 같다”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. “민족의 운명에 너무 무관심한 것 같다”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나는 그때 그 학생들의 말을 들으면서 괴테가 엑젤만에게 한 말이 새삼스럽게 떠올랐습니다. “독일의 작가가 된다는 것은 독일의 순교자가 되는 것이다.”

— <4·19와 문학적 범죄> 중에서

이러한 천 시인의 산문을 보면 그가 결코 순진한 어린이라든가 행색에 신경을 안 쓰는 거리의 기인일 뿐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. 그는 세계적 지성, 역사의식, 현실참여적 행동의식까지 지녔던 인물이다. 그가 박봉우 시인과 신동엽 시인을 좋아했고 그들에 대한 추모의 글을 남긴 것도 같은 맥락의 뜻을 담은 것이다.



만남과 관계의 소중함

또 천상병 시인은 다음과 같은 글도 남겼다.

스승이 없는 사르트르, 이웃이 없는 사르트르, 대화할 상대가 없는 사르트르는 그 자신이 존재할 수도 없다. 자기 존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만 있는 것이다. 가브리엘 마르셀은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‘관계’를 중시하며 최고의 ‘관계’는 ‘사랑’이라고 했다.

—<내가 좋아하는 작가>에서

그는 1960년대의 한 시절에 종종 서울의 명동성당 마당에 나타났다. 그곳에 가면 미사에 오는 구상 시인을 만날 수 있고, 그는 천 시인에게 돈을 잘 주었다. 구상 시인도 가브리엘 마르셀의 철학을 좋아했으므로 두 사람은 마르셀의 같은 문도인 셈이다. 마르셀은 인간들 사이의 만남과 관계를 중시했고, ‘오늘이 곧 영원’이라는 시간관을 가진 현대의 철학자였다. 또 그는 민주주의를 좋아했지만 그 민주주의의 ‘평등’ 사상에 대해 자기다운 주장을 했다. 사람들이 서로를 비교해서, 싸우는 것이 아니고 형제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. 평등과 정의를 주장하더라도 원망과 쟁탈의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다. 그러한 외면적 시비는 구악을 일소한 후에도 다시 신악을 구악으로 키우는 문제를 지속한다는 것이다.

천 시인은 1967년에 독일로부터 귀국한 옛 서울상대 동창생이 사주는 술을 얻어 마신 것이 발미가 되어 이른바 동백림 간첩단 사건에 휘말려 들었다. 수사기관에서 억울하게 모진 고문을 당하고 풀려났다. 천 시인은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지만 누구에게 원한을 품지도 않았다. 그 뒤 1970년 문예계간지 <창작과비평> 여름호에 발표한 시가 바로 <귀천>이다.

“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/ 가서,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리”

천성적으로 원한을 몰랐던, 거리의 탁발 행자이면서도 세상을 아름답다고 말했다, 착하기만 했던 시인 천상병. 그는 사람들 사이의 만남과 사랑을 철학 차원에서 소중히 여겼고, 정의로운 역사적 행동에 선망을 보내기도 했다. 이 모두를 함께 하는 것이 천 시인을 진정으로 기리는 일이 될 것이다. **한민**

구중서님은 문학평론가로 <역사와 인간> <우리 시대의 시인 신경림을 찾아서> <문학과 현대사상> <변양정에 올라서서> 등의 저서가 있다.